

붙임 자료



## 프로그램 활동자료 및 신문 보도실적



## 붙임1. 프로그램 활동자료



공정무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가



에코 디자이너



신재생에너지학자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이 내 꿈이 될 것 같고 감사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전체 리더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국제개반 분야 라는 직업을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식별을 통해 배우 많은 것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이 분야에 대해 더 관심있게 되었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싶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상대편에서 어떤 생각이나 일을 하게 할 생각이 없는데 흥미로운 것 같다. 자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좋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운것 잘 알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즐거움 주셔서 감사했고 이쪽은 전공을 쌓아보게 되어	제가 처음엔 미안한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양해하고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도 하게 되었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그동안 환경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관심이 생겼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나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알고 하게 되어 기쁘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

## 붙임2. 신문 보도 실적

아시아일보

2015년 10월 19일 (월)  
06면 서울

# 성동구, 자유학기제 효율적 운영·정착 돕는다

### 중학교 대상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 지원... 꿈과 끼 쑥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공존(共存)'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동구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된다. 성동구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친 연계기관으로는 구청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서울숲 그

린트리스트,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등이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0월~11월 동안 동마중학교와 무학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390명을 대상으로 2학기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론 교육과 공정무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가, 에코디자이너, 재생에너지화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이 직접 강

연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 보고 체험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공존(共存)'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해 12월 중 전(全)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중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이 소질과 잠재능력, 적성을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밝은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 같다. 성동구청과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 협력해 개발 및 운영하는 '공존(共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관 기자 26.1 X 9.7 cm

## [아시아일보] 성동구, 자유학기제 효율적 운영·정착 돕는다

시대일보

2015년 10월 19일 (월)  
06면 서울

# 성동구, 자유학기제 지원

### 중학교 대상 생태·환경 프로그램 '공존' 운영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공존(共存)」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동구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된다. 성동구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친 연계기관으로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서울숲 그린트리스트,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등이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0월~11월 동안 동마중학교와 무학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390명을 대상으로 2학기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론교육과 공정무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가, 에코디자이너, 재생에너지화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이 직접 강연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보고 체험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공존(共存)」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해 12월 중 전(全)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중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이 소질과 잠재능력, 적성을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밝은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 같다. 성동구청과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 협력해 개발 및 운영하는 「공존(共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창균기자 cgkang@sidaeilbo.co.kr 15.5 X 12.9 cm

## [시대일보] 성동구, 자유학기제 지원

☰ 홈 > 뉴스 > 서울자치구 > 성동구

## 성동구,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공존' 지원

중학교 대상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운영

2015년 10월 16일 (금) 10:47:52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mailto: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공존(共存)'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동구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된다.



연계기관으로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서울숲 그린트러스트,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등이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0월~11월 동안 동마중학교와 무학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390명을 대상으로 2학기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론교육과 공정무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가, 메코디자이너, 재생에너지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이 직접 강연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보고 체험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존(共存)'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해 오는 12월 중 전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중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이 소질과 잠재능력, 적성을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밝은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다"라며 "성동구청과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 협력해 개발 및 운영하는 '공존(共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mailto:news@hg-times.com)

8.2 X 19.3 cm

**[한강타임즈] 성동구,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공존' 지원**

## 일간투데이

2015년 10월 19일 (월)  
14면 지역

### ◆ 서울 **성동구**

####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공존’ 운영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공존(共存)’프로그램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동구**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된다.

양경섭 기자 [yks2015@dtoday.co.kr](mailto:yks2015@dtoday.co.kr)

8.9 X 8.6 cm

#### [일간투데이]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공존’ 운영

## 우리일보

2015년 10월 19일 (월)  
07면 지역

### **성동구**,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생태 · 환경 · 예술 · 진로 통합 프로그램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예술·진로 통합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공존(共存)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동구**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된다.

**성동구**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친 연계기관으로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서울숲 그린트러스트,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등이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0월~11월 동안 동마중학교와 무학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390명을 대상으로 2학기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엄정애 기자

8.9 X 10.7 cm

#### [우리일보] 성동구,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예술 이해높이고 진로탐색 돕고

## 성동구 중학생들에 '공존'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이달과 오는 11월 동마·무학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390명을 대상으로 2학기 선택 프로그램 '공존(共存)'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존'은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구는 생태·환경·예술 분야에

대한 이론교육과 공정무역전문가, 국제개발협력가, 에코디자이너, 재생에너지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이 직접 강연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보고 체험활동을 해볼 예정이다.

또 공존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해 오는 12월 중 전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9.9 X 7.8 cm

[시민일보] 성동구 중학생들에 '공존' 지원

끝.